

[종교·복지]

종교·복지 단신

'IYF세계 대회 기념 음악회'

○국제 청소년 연합(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이 8일 오후 7시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2006 IYF세계 대회 기념 음악회'를 연다.

이날 공연에선 광고 음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정결한 여신',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의 레퍼토리를 감상할 수 있다. IYF고문인 박옥수 목사의 축하 메시지도 공개된다.

IYF세계 대회는 70개국 3천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것으로 이번 공연은 아리랑 TV 후원으로 광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열린다.

휠체어 장애인 변비에방교실

○전남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장우환)은 운동량이 부족한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변비에방교실인 '굵고 긴 바나나'를 실시하고 있다.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관관에서 열리며 스트레칭 및 운동 교실, 웃음 교실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061-332-4105

향교 '청소년 충효에 일일캠프'

○광주 향교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광주향교내 충·효·에 체험교육관에서 '청소년 충효에 일일캠프'를 개최한다.

공수, 다례, 배례 등을 배우는 예절교육과 후호, 종이 공작실 등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참가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7~14세 아동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외국인도 연령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5천원. 문의 http://www.gijhyanggyo.or.kr, 062-431-6501

을 여름 山寺서 자아성찰

템플스테이 마음 여유 되찾고 자신 되돌아보는 기회로

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됐다. 모처럼 맛보는 풀밭같은 휴식을 취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테다. 바쁜 일상에 치여 자신을 잃기 쉬운 현대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어딘가 '일 곳'을 찾고 있다면 이번 휴가는 고즈넉한 산사에서 템플스테이(사찰체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한 산사에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현대인은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도 없이 앞으로만 질주하고 있다"며 "번잡함 속에서 지내다 극도로 조용한 곳에서 수행을 하다보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자

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기 내면의 세계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는 대부분 예불, 참선, 공양, 율령 등으로 진행된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재충전을 도와주는 이들 프로그램 외에 사찰마다 다도, 한문학교, 경전 공부, 죽을 체험 등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만큼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조금 더 심도깊은 체험을 원한다면 참선 수련회도 참여할 만 하다. 템플스테이와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참선 시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간화선(看話禪) 체험도 진행된다. 하루종일 입을 다문 채 나와의 대화에 몰두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 만큼 초보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템플스테이나 수련회 모두 일시적이거나 출가자의 신분이 되는 것인 만큼 그리 녹록치는 않다. 기본적으로 ▲묵언(默言·말을 하지 않음) ▲예불(禮佛)과 공양(供養) ▲운력(運力·율령)이라고도 하며 일종의 노동 수행) ▲참선(參禪) 등 출가인과 같은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반드시 수련복을 착용해야 하며

휴대폰 사용이나 외출도 금지된다.

이 밖에 어린 아이를 포함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련에 충실하기 위해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찰도 있으므로 '가족 휴가' 개념으로 사찰을 찾아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굳은 마음을 먹을 필요도 없다. 자신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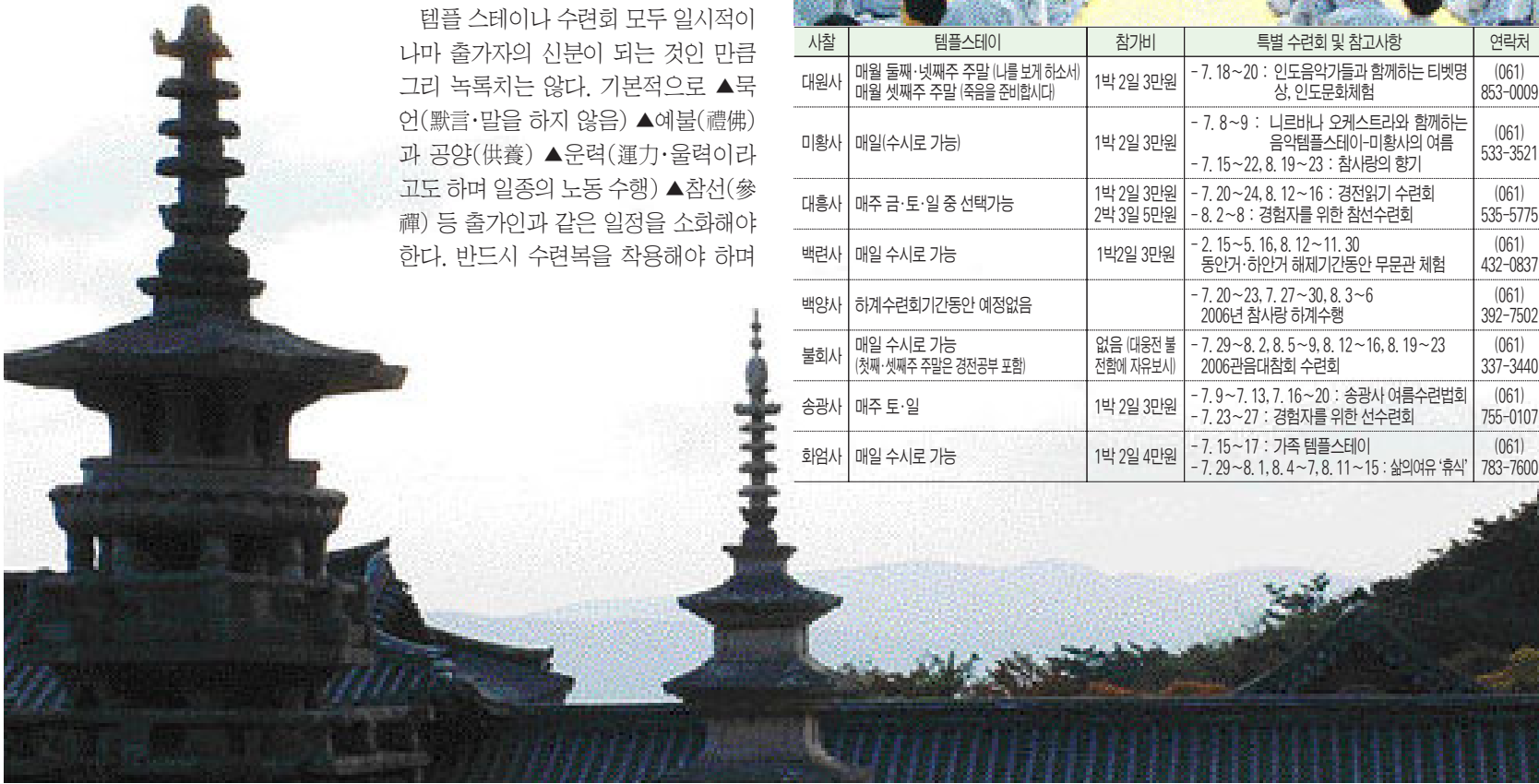
를 통해 좀 더 성숙한 나를 찾고, 침묵의 미학을 깨닫게 되면 말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 보다는 주변의 소리, 마음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이번 여름 가까운 남도의 사찰을 찾아 템플스테이를 경험해 본다. 잊지 못할 휴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Table with 5 columns: 사찰, 템플스테이, 참가비, 특별 수련회 및 참고사항, 연락처. Lists various temples and their programs.



종교 칼럼



여연스님

군사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이며, 경제적으로도 부국인 미국의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진단한 보도가 나와 흥미롭다.

미국의 병증은 과중한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비만과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럽에 만연했던 심각한 현상도 이와 비슷한 진단으로 보도된 바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삶에 얽힌 스트레스와 비만, 지나친 음주(알콜)가 병증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살펴보면 이 세가지 병리적 현상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남보다 잘 먹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과중한 일을 초래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그속에는 아주 미미한 것들이 얽혀 복합적인 징후가 깔려 있다. 예를 들면 정권의 법치에서 나타나는 무한 경쟁의 아귀다툼, 과도한 욕망의 무한

병을 부르는 과도한 욕망

질주 등이다. 이런 일의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먹고, 그 술때문에 과식하게 되어 비만을 몰고 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만과 알콜, 스트레스와 외로움 모두가 현대 사람들에게 심각한 병증을 옮겨주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어느 경제학자가 지적했듯이 '중요속의 빈곤'을 앓고 있다. 2억이 넘는 인구 중에 일을 포기하고 나라에서 얻어먹는 사람들, 그야말로 거지가 2천500만명이나 된다니 실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가 거지라니 말이나 되는 일인가.

어쨌든 이 심각한 현대병은 인류미래사에 희망의 불씨를 꺼져가게 하고 있다. 사실 깊숙이 진단해 보면 모두 마음의 병인 욕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옛 선인들은 소분지족(小分智足),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삶의 철학으로 새겼다. 적은 분수를 지키며 만족 할 줄 아는 삶. 그러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병인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존재의 양식을 삼았던 것이다. 참으로 동양의 지혜는 크다. (일지암 주)

Advertisement for '25년 고객사랑!' featuring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Includes text about food quality, service,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E+ Real Estate Consulting) with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전경하는 동료·선배 중개사님들께' (Colleagues and senior brokers) offering special services and contact info.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Honam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중앙국토개발컨설팅' (Central National Land Development Consulting) with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Donglim 2-district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지공인중개사' (Large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various land parcels.